

체신금융 분산시스템 참여업체 추천

우리 협회는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체신금융분산 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업체를 추천했다. 체신금융분산시스템은 급격한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력을 확보하며 체신금융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산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단말기 약 4천 8백대에 현금지급기 1천여대가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우체국전산업무를 분산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이번 추천업체는 한국전산, 한영시스템즈, 현대전자산업, LG-EDS시스템을 비롯한 SI업체 14개사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추천업체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설명회를 갖고, 사업제안서를 접수 검토후 개발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보화촉진기본계획시안 의견제출

우리협회는 정보통신부가 마련중인 정보화촉진기본계획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최근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에 이어 구상되고 있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시안은 △ 국가사회정보화촉진 △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 △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등을 통해 2000년대 국가발전에 필요한 정보사회 모습을 그려가려는 계획의 초안이다.

이 안은 오는 12월말까지 최종시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에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상정, 심의케 된다.

광주 ION-HIGHTECH '95 현황리에 종료

우리협회는 유관기관이 10월 26일 ~ 29일 광주에서 공동주최한 ION-HIGHTECH '95 행사가 현황리에 끝났다. 이번 행사의 워크숍에서는 정보통신 신기술동향등 15개 분과 연구발표가 있었으며 74명의 연구발표자와 청중 380여명이 참석했다.

그리고 조선대학교에서 있던 전시회에는 첨단정보통신기기, 멀티미디어, 인터넷 등이 전시되었고 34개의 전시부스와 5만 3천여명이 관람했다.

'96년도 정보통신산업 전망 심포지움 개최

우리협회는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한국경제신문사와 함께 내년도 산업전망에 관한 심포지움을 갖는다. 오는 12월 12일 강남구 삼성동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관에서 열리는 이 심포지움은 정보통신산업의 각부 문별로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서 종합토론을 실시한다.

발표된 주제는 기본통신, 부가통신, 정보기기,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등 5개 분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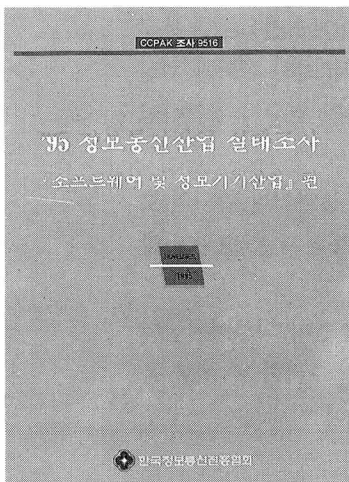
심포지움 참가는 유료이며, 참가신청 의뢰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조사연구부(5131-181~4).

초고속망사업자 승인절차 및 승인기준 의견 마련

우리협회는 11월 13일 협회 회의실에서 업계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초고속망 사업자 승인절차 및 기준에 대한 의견안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초고속망 사업자승인은 초고속망 사업을 기간망 중심의 망구축에서 탈피, 창의성있는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에 따른것이다.

이에 따라 두산정보통신 등 15개사(기관)와 우리협회는 의견안을 마련, 주무부서인 초고속망사업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 '95 정보통신산업 실태조사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기기 산업편'이 최근 발간됐다.